

#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조성 주민의견 듣는다

### 새만금개발청, 군산·김제·부안 지역 주민과 의견 수렴의 장 마련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13일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에서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지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군산·김제·부안 지역 주민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7km에 이르는 왕복 6차로의 지역간 연결도로 사업의 적정성과 환경영향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었고, 최적의 도로 노선이 결정되었다는 내용도 전달됐다.

지역 주민들은 이번 사업을 통해 새만금의 개발 촉진과 투자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는 필요성에 공감하며, 사업 시행과 환경영향 저감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는 7월 29일부터 새만금개발청 누리집과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등에 공고되어 열람을 원하는 지역 주민은 새만금개발청(7반사설과), 군산사(환경정책과), 김제사(환경과), 부안군(환경과)에 설치된 4곳의 공람 장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오는 27일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공람한 후 제

시된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고 환경부와 협의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귀담아들어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면서,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가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새만금의 미래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01만호기자

### 농관원 전북,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 결과 위반 19곳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하 농관원 전북지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한 결과 19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7일부터 이달 9일까지 진행한 이번 단속은 축산물 수입·가공·판매업체, 피서·관광지 주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중점 점검 사항은 △외국산육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돼지고기가 5곳으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오리고기 각 3곳, 닭고기 1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익신의 한 음식점은 미국산 돼지고기로 돼지주물럭을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가 단속반에 적발됐다.

전북지원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7곳은 형사 입건하고, 미 표시한 12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259만 원을 부과했다."

김민욱 전북지원장은 "소비자들에게서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뉴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 김경안 새만금청장, 중국 투자유치 행보 나서

###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방문 현황 점검·중국 웨강아오 호텔연합회 왕이량 회장 등에 투자 의견 들어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13일 중국투자자와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현황을 방문해 관광산업 투자 관련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중국 웨강아오(광둥·홍콩·마카오) 호텔산업연합회 왕이량 회장 등으로부터 다양한 투자 의견을 들었다.

이번 투자 간담회는 김경안 청장이 중국 관광산업 투자 업계와 첫 만남의 자리로, 새만금 관광산업 투자를 점검하고 관련 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이를 통해 관광산업 투자 상승세를 이어가고자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중국 웨강아오(광둥·홍콩·마카오) 호텔관광산업 투자 업체를 대표하는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웨강아오(광둥·홍콩·마카오) 호텔산업연합회 회장 마카오 회복문화관광 홀딩스그룹 회장 중국 세계여행회 조직위원회 부주석 마카오·심천 문



화교협회 부회장, 강소성 염성시 한국투자유치 대표 등은 새만금 개발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북핵리조트(호텔, 컨벤션) 등에 많은 관심을 표했다. 특히 새만금 신항의 크루즈와 K-한식(한식, 한복, 한옥) 등을 접목하여 새만금 관광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과 가능성에 대하여 논했다. /이만호기자

# 윤순희 새만금청 차장, 인도 텔랑가나주 방한단 접견

윤순희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13일 한국을 방문한 인도 텔랑가나주 D.스리다르 바부(D.Sridhar Babu) 전자정보통신·상공·안법부 장관등 방한단을 만나 새만금 입주기업의 텔랑가나주 사업 확장에 대한 협력 사항을 논의했다.

인도 텔랑가나주의 지난해 지역 내 총생산은 약 1,600억 달러로 인도 내 6위를 차지했으며, 주도인 하이데라바드는 68개의 경제특구가 소재하고 있는 곳으로, AI(인공지능, 정보기술), 제약, 화학 제조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새만금 입주기업인 (주)제이아이테크

(대표 함석현)는 2020년 인도법인을 설립, 2024년부터 하이데라바드 부지에 알앤디(R&D, 연구·개발) 연구소와 공장설립을 위해 용지 매입을 추진하는 등 해외로 뻗어나가고 있다.

(주)제이아이테크는 인도 텔랑가나주에 조성된 화학 및 제조업 클러스터를 활용하여 고급 엔지니어를 채용, 반도체용 전구체 재료, 올레드(OLED), 유기발광다이오드) 재료 등을 생산할 계획이다.

윤 차장은 "현재 (주)제이아이테크 인도법인에서 생산하고 있는 원재료를 새만금 공장에 공급하고 있는 만큼 인도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상황"입



을 강조하며 인도 텔랑가나주에서 새만금 입주기업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의 지원을 요청했다.

향후 새만금개발청은 인도 텔랑가나주와 협력해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할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만호기자

## '6개월 실세금리 특판 예금' 출시

전은, 단기 가입 기간에 높은 금리 제공... 13일부터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이 단기 가입 기간에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6개월 실세금리 특판 예금'을 13일부터 출시한다.

오는 9월 12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는 이번 6개월 실세금리 특판 예금은 가입 기간 6개월에 최고 3.55%(기본금리 3.40%) 금리를 제공하며, 1,000만원 한정 판매한다. 가입 대상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 일반 법인으로 가입액은 계좌당 100만 원 이상 고객당 20억 원을 한도로 한다.

개인 고객은 신규 월부터 만기일 전전월까지 전북은행 입출금통장에서 공과금 자동이체 출금 실적이 3회 이상인 경우 우대금리 0.15%를 제공한다.

법인 고객은 신규 익월부터 3개월간 전북은행 법인 전용 원화 입출금통장의 평균잔액이 5백만 원 이상인 경우 우대금리 0.15%가 적용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금리변동기에 경쟁력 있는 금리인 이벤트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특판 상품으로 준비했다"라고 말했다. /이만호기자

# 전개공, 폭염대비 건설현장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전북개발공사가 연일 체감온도 37도 이상 폭염 속에서 일하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온열질환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정호)는 공사 옥외 사업현장(김제, 고창, 익산 등) 4개소에 폭염대비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의식 고취를 위해 현장여건에 따라 커피차 등을 운영해 더위를 식혀줄 음료 및 온열질환 예방용품(아이스 넥밴드)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감성인원활동을 실시했다.

공사 최정호 사장은 "무더운 여름 야외 현장에서 작업하는 현장 근로자의 안전 강화는 물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탄소 배출량 증가에 따른 이상 기후로 고온 현상이 지속되는 만큼 현장

탄소배출 데이터 관리도 병행해 전자적인 ESG 경영 실천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개발공사는 폭염대비 건설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매년 건설현장 근로자를 위한 각종 캠페인 등을 실시해오고, 올해 7월에는 온열질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현장점검 및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김육기 기자

# 새만금개발청, '2024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 개최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13일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가 비상사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을 비롯해 전 직원이 참석한 이날 보고회는 을지연습의 사전 준비 상황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을지연습은 국가비상사태 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비상 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며, 변화하는 북한

의 위협을 반영해 실질적 훈련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새만금청은 이를 위해 새만금 국가산단 폭탄터러, 신시·가력 배수갑문 전산 해킹 등 실제 전쟁 상황을 가정 한 대응 연습을 진행하여 전방위적인 대비 태세를 확립하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전 직원이 을지연습을 통해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강조했다. /이만호기자

##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